

철학자로서의 友松

尹 明 老

㉠ <한 남자로 태어나서 길이 후세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한 마디의 말이 그대로 곧 천하의 법이 되었다(匹夫而爲百世師 一言而爲天下法)>—이것은 문공 한퇴지(文公韓退之)의 인품에 대한 소동파(蘇東坡)의 찬평(讚評)이거니와, 나는 우송(友松) 김태길(金泰吉) 선생과 면대할 때마다 으레 이 글귀를 생각하게 된다. 까닭은 선생의 일언일동(一言一動) 속에서 만약 시대적 배경이 옛날이었다면 당당히 전시(殿試)에 장원 등과(壯元登科)하여, 출사(出仕)해서는 지조 높은 당상(堂上)으로서 만인의 귀감(龜鑑)이 되고, 치사 환향(致仕還鄉)해서는 학덕 높은 스승으로서 많은 후학들의 사표(師表)가 됨으로써, 명성이 일세에 진동(震動)하였음에 틀림이 없는 고결한 선비의 품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송 선생은 과연 한편으로는 명문 사족(名門士族)의 후손다운 강직한 기질과,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 출신 특유의 온유한 성품을 겸유하고 있는 데다, 금상첨화로 남달리 출중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우송이, 매사에 그토록 민족적 차별이 극심했던 일제 치하에서, 일본 전국의 내노라 하는 수재들조차 하늘의 별따기처럼 동경하여 마지않던 제3고등학교의 입학의 관문을 돌파하였고, 이어 명실공히 당시의 일본의 문화와 학문의 권부요, 정계를 좌우한 학벌 정치의 산실로 군림하던 동경 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더구나 그 안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로 이름 높았던 법학부에 입학을 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송이 이처럼 명문 대학의 돌파를 결심한 것은 물론 이민족의 통치 밑에서 구차스럽게 영달이나 출세 따위를 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었으며, 또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아무리 학식과 재질이 일본인들보다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언감생심 출세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송의 깊은 의도는, 첫째로 한국 문화의 말살을 획책하던 일본인들의 오만에 대하여 그들과의 두뇌 경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둘째로 정의의 구현을 생명으로 하는 법학을 통해서 정의의 진의(眞義)를 탐구함으로써 타민족과 그 문화를 유린하는 간악한 일제의 불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대결하려는 데에 있었다. 우송이 8·15 광복과 더불어 이 땅에는 중우(衆愚)들이 내 세상 만 난 듯이 출세와 영달의 꿈을 안고 발호(跋扈)하는 광명의 시대가 찾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성대학(京城大學)에 편입함에 있어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 할 법학과를 버리고 도리어

철학과를 택하여 윤리학을 전공하게 된 소이도, 이처럼 젊은 유학 시절에 빠져들게 사무친 만일감정으로 부터 싹튼 학문적 탐구욕이, 그로 하여금 법의 원천인 동시에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할 도덕·윤리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 천착에로까지 나아가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② 이렇듯 우송 선생이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윤리학에 뜻을 품게 된 동기가, 따지고 보면 결국 일제 통치 밑에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절박한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만큼, 그의 철학은 결코 현실로부터 유리된 단순한 강단 철학이 아니요, 그의 윤리학은 만고 불역(萬古不易)의 관념적 가치 체계의 수립이나 일삼는 윤리학이 아니다. 가치·윤리·도덕의 제문제를 언제나 현실과의 관계에서 척결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우송의 철학이며, 윤리학이다.

미상불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보람찬 것으로 만들고 싶어함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갖는 소망의 가장 궁극적인 것> (김태길, 『인간회복 서장』, p. 106)이요, 이 <보람찬 삶>은 가치의 실현 여부와 직결 되어 있는 만큼, 가치관의 문제를 현실 생활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구하는 보람찬 삶이 만일 물질적 가치의 실현만으로 이룩될 수 있다면, 가치관의 문제는 구태여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 또는 <가치관의 문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도리어 <중대한 관심사로서 제기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초미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자세 내지 가치관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힘을 가진 것은 없다> (앞의 책, p. 12)고 할 만큼 이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겠거니와, 이것은 곧 <보람찬 생활이란 경제 또는 물질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앞의 책, p. 107). 그러나 이 도덕 또는 가치관의 문제도, 인간의 사회 생활이 복잡 다기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예전에 있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양심과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두 사람의 성현이나 군자가 나타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단결된 노력을 요청하는 사회 개조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앞의 책, p. 107). 여기서 우송 선생이 말하는 사회 개조란 다음아닌 <사회 정의>가 실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정신적 자세 내지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오랜 습성 내지 타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송 선생은 바로 여기에 <전통적인 도덕 관념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 사이에 부조화의 현상이 생기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앞의 책, p. 196). <사회의 모습이 하루하루 달

라지고, 새로운 모습의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의 양식도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양식을 위한 규범의 구실을 해야 할 도덕적 가치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까닭에 여기에 필연적으로 낡은 도덕 관념과 새 시대의 요구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는 마침내 <묵은 도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것은 다시 곧 <새로운 도덕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 사회적 존재라는 자각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사회 생활을 위하여는 행위의 규범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앞의 책, p.199). 여기에 우리는 도덕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우송의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볼 수가 있거니와, 이것은 바로 우송의 윤리학이 현실에다 기반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우송 선생은 새로운 도덕을 전통적 도덕과 완전히 절연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사상은 과거에 원천을 둔 연속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은 <묵은 가치관을 떠나서 순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은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통하여>, 따라서 <전통적 도덕과 새 시대의 요구와의 변증법적 종합 내지 지양 가운데서> (앞의 책, pp.199~200) 그 수립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송의 신념이다. 이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현실에 맞는 가치 체계의 혁신은 물론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우송은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모두가 <세계와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심기 일전>을 할 필요가 있거니와, 이러한 심기 일전의 계기로서 우송은 <우리 모두가 조만간 죽음을 면치 못할 유한자(有限者)라는 엄숙한 사실을 때때로 상기할 것>을 설유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웅졸한 소아(小我)를 초월하여 보다 큰 자아로의 눈을 뜨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앞의 책, p.110). 여기에 우리는 인생과 가치의 관계에 대한 우송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송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기반을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적 가치에다 두고,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적 가치가 가치 체계의 정상(頂上)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 또는 권력 따위의 수단적 가치가 본래적 가치로서의 인간 위에 군림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본말(本末)의 전도에 묵은 가치관의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우리의 관찰이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면, 새 가치 체계의 첫째 과제는 저 뒤바뀐 가치 서열을 그 본래의 위치대로 되돌려 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송은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근거를 인간의 성실성에서 찾고 있다. <진실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성실성을 추구하는 실천의 원리>이며, <인간이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미상불 어떠한 가치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어떠한 가치의 실현도 인간의 존엄성을

대전제로 삼지 않고서는 모두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요, 인간이 성실성을 결여할 때는 어떠한 가치의 추구나 실현도 허위로 화할뿐더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마저도 상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는 물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여출일구(如出一口)로 제기되고 강조되어 온 문제이지만, 우송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지 이론적인 당위성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망국(亡國)의 비운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뼈아픈 체험이 결부된 사상이라 하겠으며, 바로 이 점에서 우송의 깊은 인간애에 바탕을 둔 생동하는 윤리관의 면모를 볼 수가 있다.

[3] 필자가 우송 선생과 교우하게 된 지도 어언 36년, 그러니까 8·15광복과 더불어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경성 대학에 모여든 무렵부터이었다. 그 후 이 땅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풍상, 파란이 쉴 사이 없이 밀어닥쳐 왔고, 그때마다 우송은 백년이 여일하게 나에게 가형(家兄)처럼 선배로서 매사를 돌보아 주었다. 플라톤은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항시 신에게 감사하였다고 하거니와, 확실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희비(喜悲)를 같이해 주는 지기(知己)가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독신으로 태어난 탓인지 사무쳐 오는 외로움을 견딜 길이 없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때마다 우송 선생과 같이 몇몇 지기가 항상 나의 곁에는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보람을 찾곤 한다.

우송 자신에게도 인생 역정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파란이 닥쳐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30대 도미(渡美) 시절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으로 내노라 하는 선배 법조인의 간계(奸計) 때문에 정들여 살던 집을 송두리째 빼앗겨야만 했고, 50대에 들어서서는 사람으로서 차마 견디기 어려운 기막힌 참척(慘慙)을 겪기도 하였다. 당사자인 우송 선생의 심회가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지만, 선생 자신은 그럴 때마다 크게 내색함이 없이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여 선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곤 하였다.

이렇듯 파란 만장의 풍상을 겪어 오는 동안에 어느새 우송은 화수(華壽)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만감이 교체하는 감회를 누를 길이 없다. 이제까지 남달리 눈부시게 쌓아온 많은 학구적 업적을 바탕으로 이 겨레가 살아갈 길을 뚜렷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동시에, 평화스럽고 행복한 앞날과, 그리고 만수무강을 두 손 모아 기원할 따름이다.